제XI부

부정(4) 부정제제

부정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하였다. 여기에서는, 부정에 대한 몇개인가의 화제를 다룬다.

제33장에서는, 구조의 일부 정정을 요구하는 부정 「～んじゃな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형식을 사용할 때의 원칙을 이끌어낸다.

제34장에서는,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정도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해서 생각한다. 「全然・絶対・完全」의 세 타잎의 구조를 나타내고, 더욱이 부정속성에 관계하지 않는 「はっきり・かすか」의 두 타잎의 구조도 언급한다.

제35장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실체와 부정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나서, 「～しか～ない」・「～しはしない」・「～することはない」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한다.

제33장

구조 일부정정을 요구하는 부정 「~んじゃない」

33.1 推断文으로 일부정정 요구

이러한 대화문이 있다.

①A: きょうは彼、いい時計してるだろ。

②B: そうだね。

③A: 彼、きのう新宿へ買い物に行ってね。

④B: ああ、それで。

⑤A: あっ、ちがう、ちがう。＿＿＿＿＿＿＿＿＿＿。

A씨는 밑줄 그은 부분에서 무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가능성으로서는, 몇 개인가 생각할 수 있다.

あの時計は新宿で買ったんじゃない。(저 시계는 신주쿠에서 산 것이 아니다.)

あの時計は買ったんじゃない。(저 시계는 산 것이 아니다.)

あの時計は新宿じゃない。(저 시계는 신주쿠가 아니다.)

あの時計はきのう買ったんじゃない。(저 시계는 어제 산 것이 아니다.)

あの時計は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저 시계는 그가 산 것이 아니다.)

A씨는 무어라고 말하려고 했을까?

B씨는 대화의 흐름으로부터, ④에서 「彼はきのう新宿で時計を買った(그는 어제 신주쿠에서 시계를 샀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터이다. 이 때, B씨는 상황으로부터 추측하여 하나의 판단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B씨가 여기서 행한 이와 같은 추측에 의한 판단을 「추단(推断)」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한 것을 「추단문(推断文)」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실은, A씨는 B씨가 ④에서 추단문을 만든 것을 살펴보고, ⑤에서 B씨의 그러한 추단문은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B씨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단순히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뿐이라면,

⑤A: あっ、ちがう、ちがう。そうじゃない。

라고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A씨는 B가 만든 추단문의 어디가 틀린 것인지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그러한 경우는, A씨는 ⑤의 밑줄 그은 부분에서, B씨에게 그 추단문의 특정의 일부분에 수정을 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표현을 취하게 된다.

만약 지금, A씨는「時計を買ったのではない。(もらったのだ)(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 경우, 만약,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A씨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時計」를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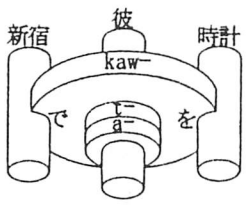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電子手帳を買ったんだ。)

(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 전자수첩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무언가 규칙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수정요구가 가능한 것일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묘사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33.2 일부정정요구을 하기 위한 절차

추단(推断)을 나타내는 구조를 「추단구조(推断構造)」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추단문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의 추단구조는 図33-1, 2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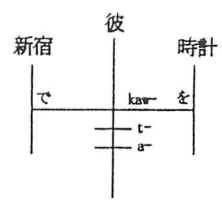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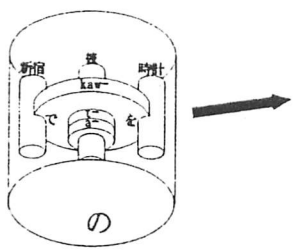


図33-1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 図33-2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 추단구조의 일부에 정정을 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화자는 우선 이 추단구조를 포함실체「の」안에 집어넣고(図33-3), 그 다음에 「~でない」의 구조의 「で格」에 이것을 두고, 전체적으로「~のではない」의 구조로 한다. (図33-4) (마찬가지로 포함실체인 「わけ」안에 집어넣으면, 「~わけではな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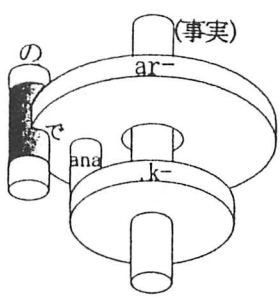


図33-3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 の 図33-4 ~のではない

그러면, 여기에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のではない。(그가 신주쿠에서 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のではない」문장이 완성된다.

이 「~のではない」구조에서는, 주체는 특히 무어라고 특정지울 수 없다. 구태여 말하자면, 그것은 「事実(사실)」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事実は)[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のではない。

(사실은)[그가 신주쿠에서 시계를 산 것은 아니다.]

포함객체(包含客体)「の」는 「は」에 의해 대비객어(対比客語), 즉 부정의 원인요소가 되어 있기(28-③) 때문에, 이것을 다른 객체로 하면, 부정속성(否定属性) -(a)na.k-가 떨어져서 전체가 긍정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객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포함객체「の」안의 일부를 바꾸는(新宿→渋谷)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事実は)[彼が渋谷で時計を買った]のである。

(사실은)[그가 시부야에서 시계를 산 것이다.]

「~のではない」는 구어에서는 「~んじゃない」가 되기 때문에, 이후 「~んじゃない」의 형태를 사용하기로 하자. (「~わけではない」의 경우는 「~わけじゃない」가 된다.)

33.3 무엇이 정정요구의 대상이 되는가

이 추단구조에는 정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4개 있다.

주체: 「彼」

객체: 「新宿」「時計」

동속성: 「買った」

이것들 중 1개를 정정요구하게 되지만, 이들 요소사이에는 교체의 용이함에 차이가 있다. 주체「彼」를 선택주어(選択主語) 「彼が」로 하여,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그가 신주쿠에서 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교환하기 쉬운 것은 선택주어인 「彼が」이다.

→ 彼女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だ。

(그녀가 신주쿠에서 시계를 샀다.)

그리고, 이것이 문두어(文頭語)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이 선택주어의 위치를 교환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が」는 사상주어의 「が」가 아니다) 역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선택주어의 교환이다.

新宿で彼が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신주쿠에서 그가 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時計を彼が新宿で買ったんじゃない。

(시계를 그가 신주쿠에서 산 것이 아니다.)

다른 요소에 우선하여, 선택주어가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교환하기 용이함을 「가환성(可換性)」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가환성을 점수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붙이는 것이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주어.....4

구・절.....3

객어.....3

술어.....2

주제어・화제어.....0

강조가 주어지면.....+1

선택주어는 가장 교환하기 쉽기 때문에 4점. 구・절 (사상주어・사상객어를 포함한다)과 객어는 각각 3점. 술어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2점. 주제어, 화제어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 진술하고자 하는 요소이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0점. 강조가 주어진 말은 가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1점.

「~んじゃない」문중의 각각의 요소에 점수를 매겨 보면,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정정의 대상이 된다. (강조는 굵은 글자로 나타내기로 한다.)

예를 들면,

彼は 新宿で 時計を 買った んじゃない。
0 3 3+1 2

그는 신주쿠에서 시계를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에서는, 최고점 4점을 붙인 「時計」가 정정의 대상이 된다. 또,

新宿では 彼、時計、買った んじゃない。
0 0 0 2

신주쿠에서는 그, 시계,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에서는, 「新宿」는 주제이고, 「彼」「時計」는 화제이다. 필연적으로 정정대상은 「買った」가 된다.(→「拾った」)

그러면, 무엇이 정정요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원칙의 형태로 들어보자. 가환성의 점수의 나열은 [ ]에 넣어 문 앞에 놓기로 한다.

원칙1 추단구조내의 하나의 요소만을 묘사하면, 그것이 정정의 대상이 된다.

(동속성의 묘사가 없을 때는 「~んじゃない」가 아니라, 「~じゃない」가 된다.)

[4] 彼がじゃない。 (→彼女がである。) 図33-5
[3] 新宿(で)じゃない。 (→渋谷(で)である。) 図33-6
[3] 時計(を)じゃない。 (→靴(を)である。)
[2] 買ったんじゃない。 (→拾ったのである。) 図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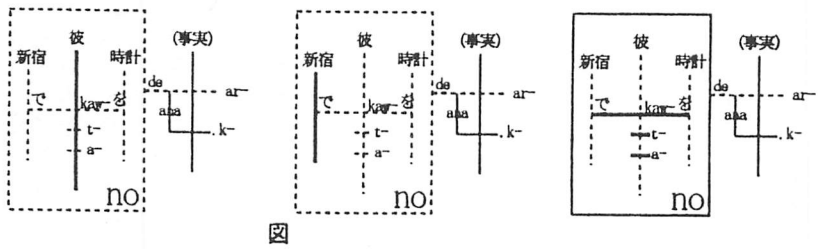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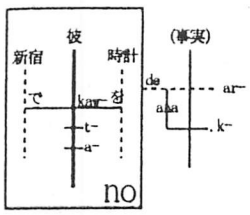


図
33-5 彼じゃない 図33-6 新宿(で)じゃない 図33-7 買ったんじゃ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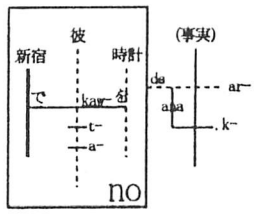
구조도시에 있어서는, 말로 묘사되는 요소를 실선으로 나타낸다. 특히 정정의 대상이 되는 요소는 굵은 선으로 나타낸다. 묘사되지 않는 요소는 점선으로 나타낸다. 「~んではない」의 「は」의 테두리 표시는 생략한다.

원칙2 원칙1의 하나의 요소에 동속성(2점)의 묘사를 추가해도, 그 하나의 요소는 정정의대상인 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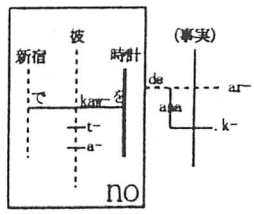
[42] 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 (→彼女が買った。) 図33-8
[32] 新宿で買ったんじゃない。 (→渋谷で買った。) 図33-9
[32]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靴を買った。) 図33-10



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
図33-8



新宿で買ったんじゃない
図33-9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図33-10

원칙3　주제, 화제는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점) 따라서, 원칙1, 원칙2의 문장에 주제, 화제를 추가해도, 그 하나의 요소는 정정의 대상인 채이다.

[03] 時計(は)、新宿(で)じゃない。(→渋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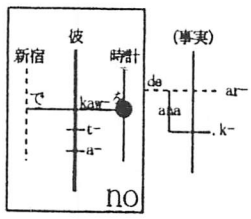
[042] 時計(は)、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　図33-11

[032] 彼(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靴)　図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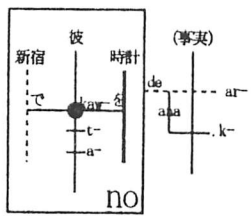
[0032] 新宿で(は)、彼(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靴)

[02] 新宿で(は)、買ったんじゃない。(→拾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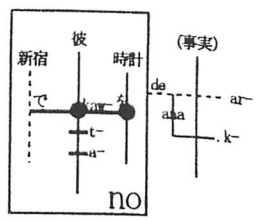
[002] 彼(は)、時計(は)、買ったんじゃない。(→拾った)　図33-13



時計は彼が買ったんじゃ～
図33-11



彼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
図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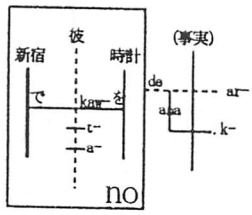
彼は時計は買ったんじゃ～
図33-13

원칙4　주어가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주어가 주제, 화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강조(+1)가 있는 요소가 정정의 대상이다. 단, 술어가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언가 0점인 것을 두고, 술어를 두드러지게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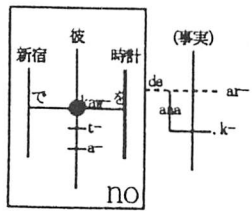
[3+1, 32]　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渋谷)　図33-14

[03, 3+1 ,2]　彼(は)、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靴)　図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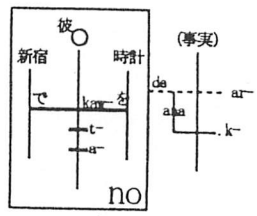
[033, 2+1]　彼(は)、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拾った)　図33-16



新宿で時計を～
図33-14



彼は新宿で時計(を)～
図33-15



彼，～買った～
図33-16

원칙5　선택주이가 있으면, 선택주이가 정정의 대상이다.

[4332]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　図33-17

[0342]　時計は新宿で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　図33-18

[3431]　新宿で彼が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　図3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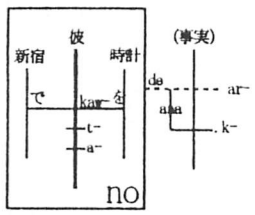


図33-17 彼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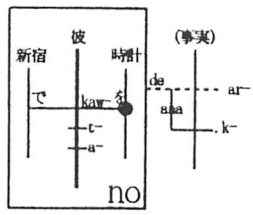


図33-18 時計は彼が～

원칙6　구조요소가 되어 있는 일부의 실체끼리나 실체와 속성의 연결을 하나의 묘사단위(句)로서 다루면서, 원칙1～5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밑에는 속성을 포함하는 사상주어의 경우와 사상객어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단위묘사(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彼の時計・白い時計・新宿(で)の時計」와 같은 것이다.

사상주이(事象主語)의 경우.....新宿で時計を「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

원칙1　[3] [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が拾った)

원칙2　(이 경우, 이미 원칙 1에 동속성의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원칙3　[03] 時計は[彼が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が拾った)　図33-19

원칙4　(이 경우, 주어는 사상주어로서 이미 나와 있다)

원칙5　(이 경우, 주어는 단독으로 다룰 수 없다)

사상객어(事象客語)의 경우.....彼は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원칙1　[3]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映画を見た)

원칙2　(이 경우, 이미 원칙 1에 동속성의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원칙3　[03] 新宿で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映画を見た)

원칙4　[034] 彼、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映画を見た)　図33-20

원칙5　[433] 彼が新宿で[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彼女が買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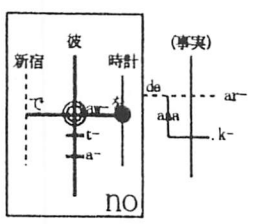


図33-19 時計は[彼が買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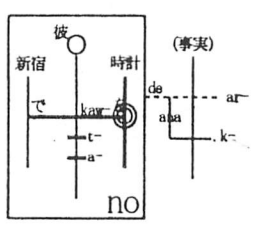


図33-20 彼，新宿で[時計を買った]～

원칙7　추단구조가 부정구조이고, 속성이 정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 요구된 정정은 동속성을 별개의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속성 -(a)na.k-를 떼어

긍정으로 하는 것이다.

彼、新宿で時計を買わなかった んじゃない。

彼、新宿で時計を<u>kaw-[ana.k-φ=ar-]i=t-φ=a-φ</u> んじゃない。　図33-21

→ 彼、新宿で時計を<u>kaw-[　　]i=t-φ=a-φ</u> んじゃない。　図3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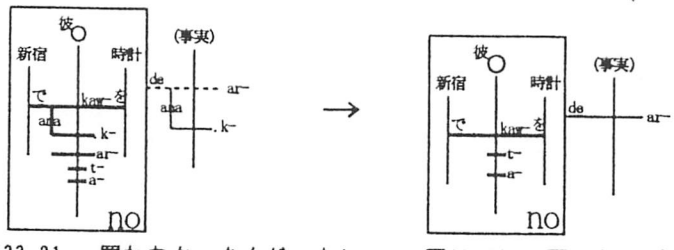


図33-21 ～買わなかったんじゃない　　図33-22 ～買ったんだ

33.4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원칙은 이상과 같다.

그러면, 조금 전의 33.1의 A씨가,

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라고 말했을 때에, 「時計」를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되어버리는 것은, 원칙(1과) 2 때문으로, [32]가 되었다.

또, 이 형태에서는 「時計を買った」전체의 정정요구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원칙6으로부터 알 수 있다. ([3]→<u>パソコンを修理に出した</u>んだ。)

A씨는 [買った]를 정정하고 싶기 때문에, 원칙1에 따라 단순히

[2] 買ったんじゃない。

라고 말하면 되었던 것이다. 만약 「時計」라고 하는 말도 넣고 싶다고 하면,

원칙3에서, 「時計」를 주제나 화제로 하여 넣으면 되는 것이다.

[02] 時計は買ったんじゃない。

[02] 時計、買ったんじゃない。

또, 어떻게든 「時計を」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원칙4로부터, 뭔가 주제나 화제를 넣어서, 「買った」에 강조를 두면 좋을 것이다.

[03, 2+1] 彼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03, 2+1] 彼、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03, 2+1] 新宿では時計を買ったんじゃない。

제34장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객체

34.1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객체.....全然

정도를 나타내는 「全然」이라고 하는 실사가 있다. 이 실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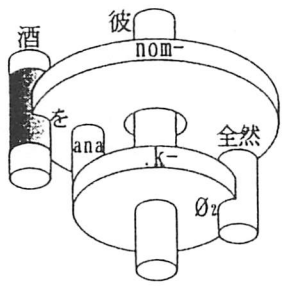
彼φ1酒は全然φ2飲まない。

와 같이, 반드시 부정으로 사용된다. 긍정으로 사용하여,

* 彼φ1酒は全然φ2飲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실사인 「酒」는, 구조상으로는 객체로서 동속성에 관계하지만, 이 실사 「全然」은 그렇지 않고, 부정속성 -(a)na.k-의 쪽에 관계하고 있다. (図34-1,2) 단, 부정구조는 그것만으로는 구조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26.3 ⑤), 부정속성에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동속성+부정속성」(nom-ana.k-)전체에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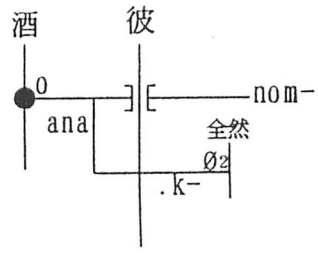


図34-1 彼，酒は全然飲まない　図34-2

「全然」이라고 하는 실체는, 구조에 있어서는 부정구조와 직접 관계하는 객체가 된다. 이와같은, 실체가 부정구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ナイ관련부정**」(図34-1,2)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34.2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도 있는 객체(1).....絶対

「絶対」라고 하는 실사는「全然」과는 약간 다르다. 동속성에도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彼φ1酒は絶対φに飲む。

라고 하는 경우의 구조에서는 「絶対」가 동속성에 관계하고 있고(図34-3,5)

彼φ1酒は絶対φに飲まない。

라고 하는 경우의 구조에서는 「絶対」가 부정속성 -(a)na.k- 와 관계하고 있다. ..... ナイ관련부정(図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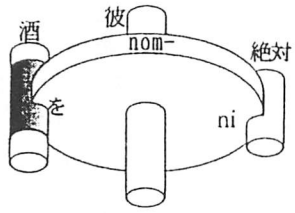


図34-3 絶対Øに飲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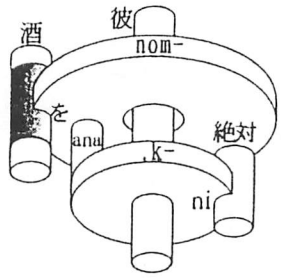


図34-4 絶対Øに飲ま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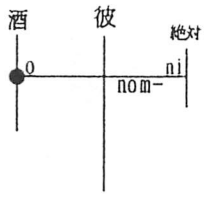


図34-5 絶対Øに飲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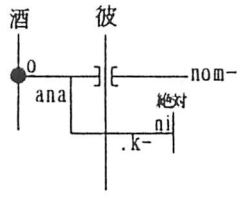


図34-6 絶対Øに飲まない

단, 동속성(動属性)에 관계하는 것은 부정의 경우가 아니라 긍정의 경우이다.

34.3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도 있는 객체(2).....完全

「完全」이라고 하는 실사는 「絶対」와 마찬가지로, 동속성・부정속성의 어느 쪽에도 관계할 수 있다.

それが<u>完全</u>にわかる。(図34-7)

それが<u>完全</u>にわからない」。(=全然わからない 図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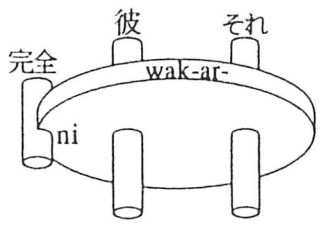


図34-7 完全にわか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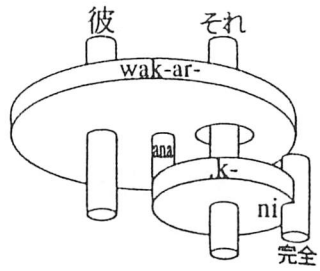


図34-8 完全にわからない

(「わかる」의 2개의 주체가 복주체인 것은 12.3참조)

그러나, 동속성에 관계한 채로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絶対」와는 다르다. 특히 「完全」이라고 하는 객체에「は」를 부여하여 <u>대비객어</u>(28-③)로 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それが<u>完全</u>に<u>は</u>わからない。(=80% 안다 図34-9)

이것은, 뉘앙스로서 비교하여야 할 구조가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객체를 대비상대의「不完全」으로 한 긍정구조이다. (28-③)

それが不完全にわかる。

확실히 이것은 図34-9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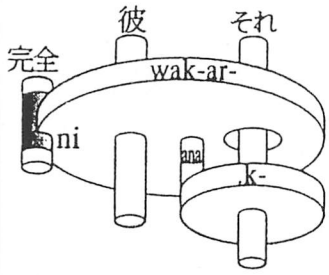


図34-9　完全にはわか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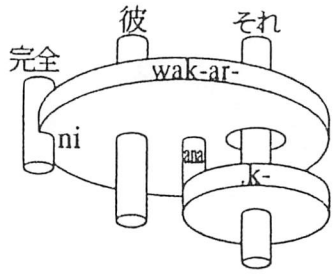


図34-10　完全にわからない

그런데, 「完全」을 대비객어로 하지 않고(즉 「は」를 부가하지 않고), 사상객어(28-④)인 채로 묘사하면,

それが完全にわからない。

가 된다. (図34-10) 이것은 図34-8의 구조에서 묘사된 문장과 같기 때문에 이의적(二儀的)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図34-10의 구조의 묘사문인 것은 「まだ」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完全」의 경우(図34-10)와 같이, 동속성에 관계한 채로 부정속성과 공존하는 것을 「**속성관련부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부정에 관해서는, 「全然」과 「絶対」가 부정속성 -(a)na.k-에 직접 관계하는 「ナイ관련 부정」의 객체인 것에 비해, 「完全」은 「ナイ관련부정」의 객체일 뿐만 이니라, 동속성에 관계하면서 부정속성과 공존할 수 있는 「속성관련부정」의 객체이기도 하다. (표34-1참조)

34.4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객체.....はっきり、かす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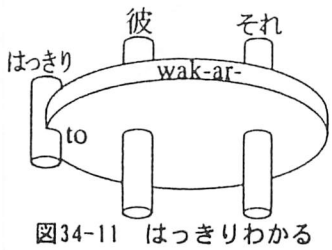


図34-11　はっきりわか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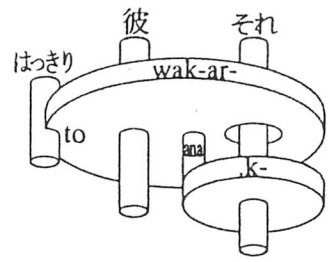


図34-12　はっきりわからない

「はっきり」라고 하는 실체는 동속성에 관계하기 때문에,

それがはっきりφとわかる。

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는 図34-11과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면, 図34-12와 같이 된다. (속성관련부정) 「はっきり」는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かすか」라고 하는 실체도

それがかすかに見える。

와 같이, 동속성에 관계하지만(図34-13), 이 「かすか」는 부정속성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図34-12와 같은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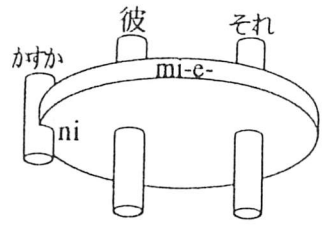


図34-13　かすかに見える

(「見える」의 2개의 주체가 복주체인 것은 12.4.1②참조)

이상, 이 장에서 다룬 실체를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표34-1과 같이 된다.

표34-1

		全然	絶対	完全	はっきり	かすか	
동속성에 관계하다	긍정	×	O	O	O	O	
	부정	×	×	O	O	×	속성관련부정
부정속성에 관계하다		O	O	O	×	×	ナイ관련부정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할 수 있는 (ナイ관련부정의) 객체는 「全然・絶対・完全」의 3타잎의 객체이다.

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完全」의 타잎에 문제가 있다. 화자가 동속성에 관한 부정(속성관련부정)의 뜻으로 「完全に」를 사용하여

完全にわからない。　(80%는 알고 있다.　図34-10)

라고 발화했다고 해도, 상대가 그 「完全に」를 부정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것(ナイ관련부정)으로서 구조를 재구성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完全にわからない。　(全然わからない。　図34-8)

제35장

諸題

35.1 数量実詞와 부정

1) 대체 왔는가, 안 왔는가

이런 문장이 있다.

学生は8人来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が、全員来ませんでした。

(학생은 8명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원 오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学生は1人も来なかった。　　(학생은 1명도 오지 않았다.)

・学生は来たが、8人未満である。 (학생은 왔지만, 8명 미만이다.)

학생은 대체 왔는가, 안 왔는가. 이 두 가지 의미(二義)를 가지는 문장에서 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2) 단일체로서의 취급, 집합체로서의 취급

「전원(全員)」을 하나의 집합, 즉 단일체로서 취급하면

全員$\emptyset_1$来ない。 (전원$\emptyset_1$ 오지않다.)

라는 것은, 「全員というものが来ない(전원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1人も来ない(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전원」을 한사람 한사람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취급하면

全員$\emptyset_1$来ない。 (전원$\emptyset_1$ 오지 않다.)

라는 것은, 오는 사람 수가 100%인 것의 부정이 되고, 예를 들어 「80%가 온다」라는 뉘앙스가 된다.

이렇게 수량실사(제38장 참조)를 부정하는 경우, 그 실사를 단일체로 취급하는가, 집합체로서 취급하는가에 의해 표현된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

3) 구조도시(構造図示)

그러면, 구조를 보기로 하자.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정구조가 되지만(図35-2, 4), 과정의 양상에 의해 2개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량실체(수량을 나타내는 실체)로서「전원」을 예로 든다. 이것은「8명」등, 다른 실체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된다.

또, 수량실체가 객격(客格)에 있는 경우도 기본은 같은 것이다. (35.1 5)

「단일체」 취급의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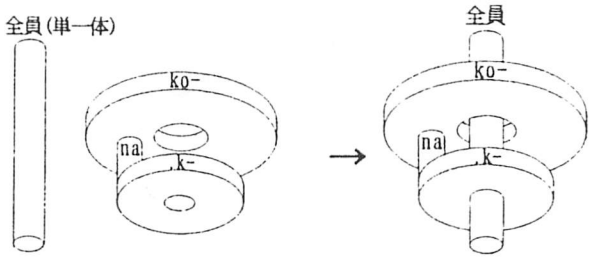


図35-1 全員 + 来ない

図35-2 全員$Ø_1$来ない
(１人も来ない)

「집합체」 취급의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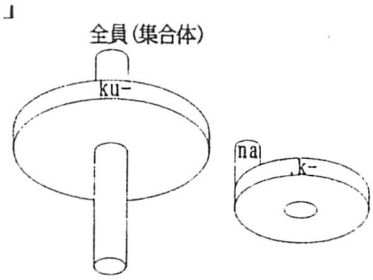


図35-3 全員$Ø_1$来る + ない
(100%来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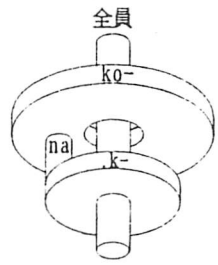


図35-4 全員$Ø_1$来ない
(来るのは100%ではなく例80%)

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全員」은 「学生」과 같은 주격에 있다.

学生$Ø_1$は全員$Ø_1$来ませんでした。 (학생$Ø_1$은 전원$Ø_1$ 오지 않았습니다.)

「全員」과 「学生」은 시차동위격(時差同位格)이다. (38.2)

4) 부정구조의 묘사

図35-2, 4의 구조를 묘사할 때, 수량실체가 놓여있는 주격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의해 몇 가지의 표층형식이 나타난다.

「全員」은 표35-1과 같이, 4종류의 주어 형식으로, 또, 단일체로서의 취급, 집합체로서의 취급으로, ①~⑧의 도합 8종류의 묘사가 가능하다. (부정에서의 6종류의 주어에 대해서는 27.1참조. 여기에서는, 사상대비주어(事象対比主語)는 대비해야할 事象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선택주어는 부정속성이 먼저 결정되어 있다는 한정성 때문에, 따로따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수량실체가 「全員」인 경우 표35-1

「全員」의 단일체			「전원」의 집합체
①	화제주어(話題主語)	全員$Ø_1$来なかった	⑤
②	주제주어(主題主語)	全員$Ø_1$は来なかった	⑥
③	대비주어(対比主語)	全員$Ø_1$は来なかった	⑦
④	사상주어(事象主語)	全員が来なかった	⑧

다음으로, ①~⑧각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자.

「단일체」 취급의 「全員」 …… 来た人はいない

① 全員$\emptyset_1$来なかった。それで、料理はそのままになっている。
전원$\emptyset_1$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리는 그대로 있다.

② (その)全員$\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それで、料理はそのままになっている。
(그) 전원$\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리는 그대로 있다.

③ (その)全員$\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しかし、別のグループは来た。
(그) 전원$\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왔다.

④ 全員が来なかった。それで、料理はそのままになっている。
전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리는 그대로 있다.

「집합체」 취급의 「全員」…… 来た人もいる

⑤ 全員$\emptyset_1$来なかった。それでも、料理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
전원$\emptyset_1$ 오지 않았다. 그래도, 요리는 거의 없어졌다.

⑥ 全員$\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そんなに多くは来なかった。)
それでも、料理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
전원$\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리는 거의 없어졌다.

⑦ 全員$\emptyset_1$は来なかった。(全員ではなくて)80人ぐらい来た。
전원$\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전원이 아니라) 80명 정도 왔다.

⑧ 全員が来なかった(集まらなかった)。が、料理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
전원이 오지 않았다(모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리는 거의 없어졌다.

덧붙여서, 수량실체가 「8人」인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보자. 표35-2에서 보는 것 처럼, 8종류의 주어 형식이 있는 것은 「全体」의 경우와 같다. 구조도는 생략하지만, 図35-1～4의 「全員」을 「8人」으로 바꾼 것이 된다.

수량실체가 「8人」의 경우 **표35-2**

「8人」 단일체			「8人」 집합체
①	화제주어(話題主語)	8人$\emptyset_1$来なかった	⑤
②	주제주어(主題主語)	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	⑥
③	대비주어(対比主語)	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	⑦
④	사상주어(事象主語)	8人が来なかった	⑧

「단일체」 취급의 「8人」……「8人」 일괄 부정 (8명 결석)

① 8人$\emptyset_1$来なかった。それで、出席者は100人のうち92人だった。
(出席予定者が8人なら、出席者なし。)
8명$\emptyset_1$ 오지 않았다. 그래서, 출석자는 100명 중 92명이었다.
(출석예정자가 8명이라면, 출석자 없음.)

② (その)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で、出席者は100人のうち92人だった。
(出席予定者が8人なら、出席者なし。)
(그) 8명$\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출석자는 100명 중 92명이었다.

(출석예정자가 8명이라면, 출석자 없음.)

③ (その)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しかし、別のグループは来た。

(그) 8명$\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왔다.

④ 8人が来なかった。それで、出席者は100人のうち92人だった。

(出席予定者が8人なら、出席者なし。)

8명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출석자는 100명 중 92명이었다.

(출석예정자가 8명이라면, 출석자 없음.)

「집합체」 취급의 「8人」……「8人」만의 부정 (1～7人 출석)

⑤ 8人$\emptyset_1$来なかった。(予定では8人……来たのは、たとえば5人。)

8명$\emptyset_1$ 오지 않았다. (예정으로는 8명……은 사람은, 예를 들면 5명.)

⑥ 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そんなに多くは来なかった。)

8명$\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다.)

⑦ 8人$\emptyset_1$は来なかった。(8人ではなくて)5人だった。

8명$\emptyset_1$은 오지 않았다. (8명은 아니고) 5명이었다.

⑧ 8人が来なかった(集まらなかった)。

(予定では8人……来たのは、たとえば5人。)

8명이 오지 않았다. (모이지 않았다.)

(예정으로는 8명……은 사람은, 예를 들면 5명.)

35.1장 앞부분에서 「全員来ませんでした(전원 오지 않았습니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상과 같이, 「は」가 관계되는 것에 의해, 8종류의 「全員」 「8人」이 있음을 판명했다.

5) 수량실체가 객격에 있는 경우

수량실체가 객격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두자.

彼$\emptyset_1$は学生全員に会わなかった。(그$\emptyset_1$는 학생 전원을 만나지 않았다.)

라는 예문의 경우, 「学生」과 「全員」이 시차동위격(時差同位格)에 있다는 것은 38.2에서 언급하지만, 여기에서는 「学生」을 생략해서 생각하기 쉽게 하자.

우선 구조는, 주격의 경우와 동격, 2가지 있다.

「단일체」 취급의 「全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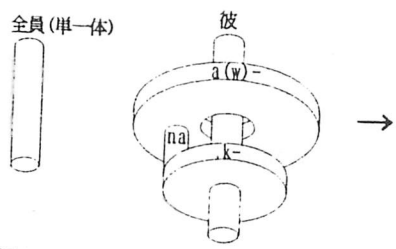


図35-5 全員 + 彼$\emptyset_1$会わ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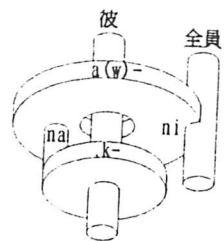


図35-6 全員に会わない
(1人にも会わない)

「집합체」 취급의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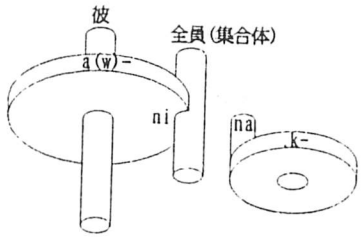


図35-7 全員に会う + ない
(100%に会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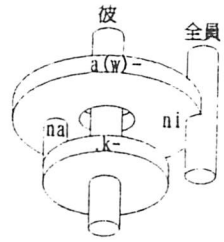


図35-8 全員に会わない
(会うのは100%ではなく例80%)

이 부정구조의 묘사에 대해서도 주격의 경우에 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객격의 경우도 6종류의 객어의 존재가 있지만(28.1), 역시 사상대비객어와 선택객어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

수량실체가 「全員」의 경우 표35-3

「全員」 단일체			「全員」 집합체
①	화제객어(話題客語)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	⑤
②	주제객어(主題客語)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	⑥
③	대비객어(対比客語)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	⑦
④	사상객어(事象客語)	全員に会わなかった	⑧

「단일체」 취급의 「全員」……会った人はいない

①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会った人はいない。)
전원을 만나지 않았다. (만난 사람은 없다.)

②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会った人はいない。)
전원을 만나지는 않았다. (만난 사람은 없다.)

③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別のグループには会った。)
전원을 만나지는 않았다. (다른 그룹은 만났다.)

④ 全員に会わなかった。(会った人はいない。)
전원을 만나지 않았다. (만난 사람은 없다.)

「집합체」 취급의 「全員」……会った人もいる

⑤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会った人もいる。)
전원을 만나지 않았다. (만난 사람도 있다.)

⑥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そんなに多くの人には会わなかった。)
전원을 만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다.)

⑦ 全員には会わなかった。(全員ではないが、たとえば80%に会った。)
전원을 만나지는 않았다. (전원은 아니지만, 예를들면 80%를 만났다.)

⑧ 全員に会わなかった。(会った人もいる。)
전원을 만나지 않았다. (만난 사람도 있다.)

「全員」을 「8人」으로 바꾼 경우도, 35.1 4) (표35-2)의 주격의 경우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생략한다.

6) 全員来たんじゃない、全員来たわけじゃない

学生Ø1は全員Ø1来たんじゃない。(학생Ø1은 전원Ø1 온 것이 아니다.)

学生Ø1は8人Ø1来たんじゃない。(학생Ø1은 8명Ø1 온 것이 아니다.)

라는 형태로 수량을 부정하는 것도 있다.

이 「~んじゃない」는 구조의 일부 정정을 요구하는 부정의 형태로, 제33장에서 다루고 있다. 「~わけじゃない」도 이것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수량실사를 부정하기(정정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33장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추단구조(推断構造)에 해당하는 것은,

学生Ø1は全員Ø1来た (학생Ø1은 전원Ø1 왔다)

이다.

원칙 1(추단구조내의 1요소만을 묘사하면, 그것은 정정의 대상이 된다)에 따르면, 수량실사만을 묘사하면, 수량실사가 정정의 대상이 된다. (「全員」을 정정하도록 요구한다.)

全員じゃない。(전원이 아니다.)

원칙 2(그것에 동속성(動属性)의 묘사를 덧붙여도, 그것은 정정의 대상 그대로이다.)에 따라, 「来た(왔다)」를 붙여도, 수량실사가 정정의 대상이다.

全員が来たんじゃない。(전원이 온 것이 아니다.)

원칙 3(화제, 주제는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에 의해 「学生Ø1・学生Ø1は」를 문장 앞에 놓아도, 수량실사가 정정의 대상이다.

学生Ø1、全員が来たんじゃない。(학생Ø1, 전원이 온 것이 아니다.)

学生Ø1は全員が来たんじゃない。(학생Ø1은 전원이 온 것이 아니다.)

원칙 4(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이 있을 경우, 강조가 있는 것이 정정의 대상이다)에 의해, 수량실사에 강조를 두면, 수량실사가 정정의 대상이다.

きのうここに**全員**が来たんじゃない。

(어제 여기에 **전원**이 온 것이 아니다.)

学生Ø1はきのう**全員**がここに来たじゃない。

(학생은 어제 **전원**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원칙 5~7은 여기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이상, 수량실사를 부정(정정)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원칙에 따라 확인했다.

35.2 「~しか~ない」의 구조

1) 실체배제묘사(実体排除描写)

3.1에서 「상대화묘사」를 다루었다. 이것은 구조상에 있는 실체를 다른 잠재적인 실체와 상대적으로 관련시켜 묘사하는 묘사법이다.

3.1에서는 ②에서 「상대화묘사 2」(실체배제묘사)에 언급하고 있고, 그 ②-1에서는 「타실체배제묘사(他実体排除描写)」를 취급하고 있다. 「こそ・だけ・(일부의)さえ」가 이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묘사법에서는,

彼がこそ犯人である。(「彼こそが犯人である」도 생각할 수 있다.)

(그야말로 범인이다.)

彼がさえ来れば、円く収まる。
(그쟈만 오면, 원만하게 수습된다.)
彼がさえ来なければ、円く収まる。(이렇게 부정에서도 사용)
(그쟈만 오지 않으면, 원만하고 수습된다.)

와 같이 「그 속성에 대한 주제(객체)가, 이 판단구조에 나타난 주체(객체)만이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판단구조를 묘사한다. 구조는 図35-9, 10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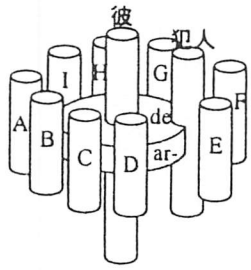


図35-9 彼がこそ犯人である
(主体A～Iは排除さ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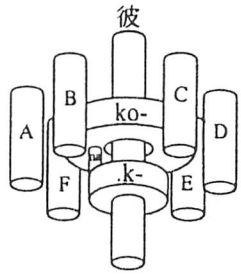


図35-10 彼がさえ来なければ……
(主体A～Fは排除される。)

2) 「～しか～ない」의 「しか」

「しか」는, 「彼がしか来ない。(그쟈 밖에 안 온다.)」와 같이 반드시 부정에서 사용되고, 역시 타실체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さえ」등과 같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彼がさえ来なければ(그쟈만 오지 않으면)……

에서는, 彼(그)는 「来ない(오지 않는다)」라고 가정되는 것이지만,

彼がしか来なければ(그쟈 밖에 안 오면)……

에서는, 彼는 「来る(온다)」라고 가정되고 있다. 따라서, 「しか」의 구조는 図35-10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된다. 図35-10에서는 그는 「来な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검토해 보면,

彼がしか来ない。(그쟈 밖에 안 온다.)

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자신이 아니라 「타실체」인 것을 알게 된다. 「그」자신은 이 「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은 「타실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자신 즉, 「자실체(自実体)」를 배제하고 있다.

「しか」는, 「타실체」를 배제하는 「こそ・だけ・さえ(일부)」와는 대조적으로, 「자실체」를 배제하는 것이다.

3) 「자실체배제」의 구조

彼がしか来ない。

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그」이외 전원이고, 「그」자신은 「오다」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그것이 구조상에서 표현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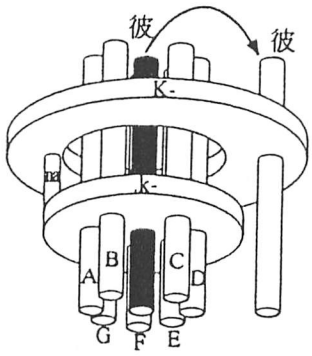


図35-11　彼が<u>しか</u>来ない
（A～Gは「来ない」。自実体「彼」だけ排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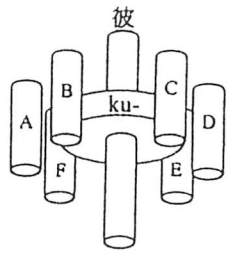


図35-12　彼<u>だけ</u>が来る
（他実体排除）

図35-11에서「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A～G의 실체이고,「그」는 이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그」는 이 주체군 속에서 빠져나온다. 실체를 칠해 놓은 것은「빠져 나온」것을 의미하고 있다. 빠져나온 후, 단독으로 긍정주체가 된다. 이것이 주격에서의「～しか～ない」의 구조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조(図35-11)는, 의미상으로는「彼<u>だけ</u>が来る」의 구조(図35-12)와, 뉘앙스는 별도라해도 , 거의 같다.

4) 객체의 경우의 구조

彼はマンガを<u>しか</u>読ま<u>ない</u>。(그는 만화를<u>밖에</u> 읽지 <u>않는다</u>.)

에서는, 그가 읽는 객체는 소설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다.「만화」뿐이다. 속성「읽지 않다」의 객체가 되는 것은「만화」이외의 모든 것이고, 속성「읽지 않다」는「만화」를 배제하고 있다. 자실체배제이다.

구조도(構造図)에서는,「만화」를 포함하는 실체의 묶음을「읽지 않다」의 객격(を격)에 두고,「만화」에 상당하는 실체를 빼낸다. 그리고, 그 실체를「읽다」의 객격(を격)에 두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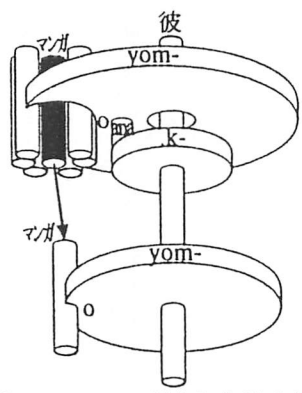


図35-13　マンガを<u>しか</u>読まない
（自実体排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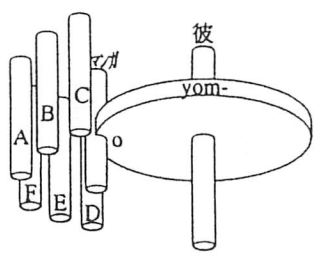


図35-14　マンガ<u>だけ</u>を読む
（他実体Ａ～Ｆを排除）

여기에서 이루어진 구조(図35-13)는, 의미상으로는,

マンガ<u>だけ</u>を読む。(만화만을 읽는다.)

의 구조(図35-14)와, 뉘앙스는 별도로 하고 거의 같다.

35.3 「降りはしない」의 구조

「降る(내리다)」의 부정은 「降らない(내리지 않다)」이고, 이 구조는 제26장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降りはしない」라는 형태의 부정의 구조를 생각해 보자.

「降る」는 동속성(動属性)이 실사화(実詞化)된 것(9.2), 즉 명사이고, 「しない(하지 않다)」는 「する(하다)」의 부정이다. 「降り(내림)」와 「する」의 관계를 생각하면, 실체와 동속성이므로, 양자는 격(格)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落下をする(낙하를 하다)」와 같이 「降りをする」일 것이다.(図35-15) (단, 긍정에서 사용할 때는 「降りØ₀はする」와 같이 상대화표시(相対化表示)가 된다.)

이것을 부정으로 하면, 「降りをしない」가 된다. 이 「降り」를 주제객어로 하는(「は」는 테두리를 두르고, 「を」를 생략한다) 것에 의해,

降りをはしない

를 얻을 수 있다.(図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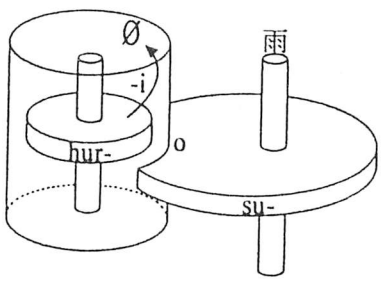


図35-15 降りを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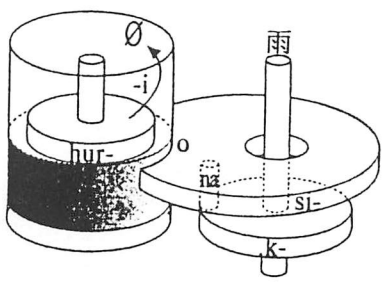


図35-16 降りはしない

「(雨は)降りはしない。」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降りもしない」는, 상대화묘사의 「は」의 테두리를 「も」의 타실체수반묘사(3.1①)로 바꾸면 얻을 수 있다. 그 경우, 의미적으로는 비난을 수반하는 부정이 된다.

35.4 「~することはない」의 구조

포함실체에 넣은 후의 부정(35.3)이라는 점에서는,

降ることØ₁はない (내리는 일Ø₁은 없다)

도 마찬가지다. 구조는 図35-17에 나타낸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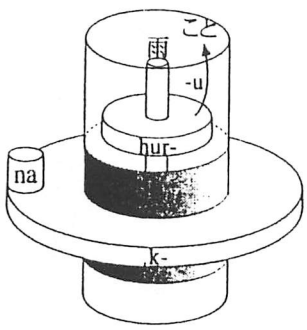


図35-17 雨が降ることはない

덧붙여서 말하면,

君が行くことはない。(당신이 갈 필요는 없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문장의 구조는 図35-18과 같고,

구조에서는 「必要」라는 실체가 유지되고 있다. 이 실체 「必要」는 묘사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것을 재현한다. (초보 일본어학습자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君が行くこと(당신이 가는 것)」는 본주체이고, 「必要」는 속성주체이다.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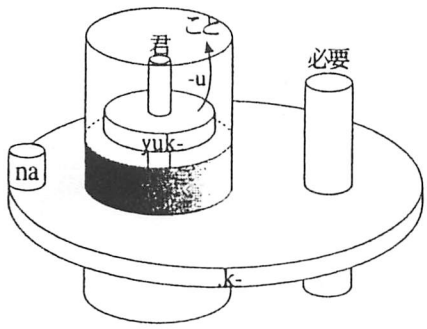


図35-18　君が行くことは(必要が)ない